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pp.155 17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양 은 용

(원광대학교)

〈요약〉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종교교과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통교과(교양)이다. 종교교과 운영은 다종교 사회 상황에서 열린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그것은 단위 학교가 모두 특정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이며, 교과 운영의 선택 폭이 넓지 않다는데 있다.

원불교의 교육이념은 개조 소태산(박중빈, 1891- 1943)이 제시한 개교동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운영방법을 수용한 초기활동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현재의 중등교육기관은 5개 법인에 1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원불교 교육기관의 종교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대체로 갖추어져 있다. 교사·교재·운영방법 등에서 그러하지만, 문제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교육을 인류의 진화와 문명사회 건설의 방법으로 보는 원불교의 교육이념이 원불교의 틀을 넘어서서 시민교양 내지 보편윤리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주제어 : 제7차 교육과정, 종교교육, 종교교과, 원불교, 원불교의 교육기관.

I. 서 론

종교는 금후의 인류사회에 어떻게 존재하며, 인류는 종교로부터 어떤 영향을

* 이 논문은 2001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받을까? 그리고 인류진화의 길로 불리는 교육은 救世濟人을 본령으로 하는 종교로부터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인류가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가꾸어온 문화, 곧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가치차원이 잘 간직된 곳을 종교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이 교육을 통해 되살려진다면 인류 삶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면서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한층 커지게 마련이다.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거는 기대가 여기에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실재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면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가운데 종교교육도 일정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광복이후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종교교육은 오랜 기간동안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포교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이 1989년에 이르러 「종교」라는 과목으로 정규교과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1992년의 제6차 교육과정을 거쳐, 현재 1999년에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으로써¹⁾, 일정한 과정운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날 국가의 종교정책은 信敎의 자유와 政敎의 분리가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²⁾, 종교교육도 그러한 공교육의 성격을 띄어야 하지만³⁾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여기서 공교육이란 제도적으로나 교육내용에 있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교육 내지 개방된 교육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종교 사회의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종교문화교육 대신에 특정종단의 신앙교육이 베풀어지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러하다. 즉 종래 우리 사회에서 베풀어진 종교교육이 엄밀한 의미에서 종단교육이나 선교차원의 宗教敎化(Religious indoctrination)는 쉽게 확인될지 모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교육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다종교 상황 아래서 그 위상을 확립시키지 못한 면이 있다.⁴⁾ 이는 종교에 있어서 포교나 선교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敎化가

1)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1997. 12. 30)

2) 「헌법」 제19조 1항의 종교의 자유와 2항의 국교 불인정 및 정교분리의 원칙이 그 요항이다.

3) 「교육법」 제5조의 교육본래 목적에 기초한 교육 및 국공립학교의 어느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의 금지 규정에서 본다면, 종립학교 역시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종교교육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교육학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⁵⁾과 맥을 같이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종교교육이 갖는 제한적인 상황에 유의하면서 원불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종립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중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상황과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앞으로 전망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종교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종교」과목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이다. 보통교과는 크게 (1) 국어·도덕·사회군, (2) 수학·과학·기술가정군, (3) 체육·음악·미술군, (4)외국어군, (5) 한문·교련·교양군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의 제 (5)군 중 「교양」에 소속되어 있다. 「교양」에는 철학·논리학·심리학·교육학·생활경제·종교·생태와 환경·진로와 직업·기타의 9과목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1학기 4단위, 즉 1학기(17주)에 50분수업의 4시간을 이수하는 수업량이다.⁶⁾

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유의해야 할 터인데, 그 가운데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옮기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를 가진다.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4) 김귀성, 「원불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일 종교교육 심포지움 발표논문』, 2001. 2.

26, 동서대, 2쪽 참조.

5) A. Flew, *Indoctrination and Religion*, I. A. Snook, *Concept of Indoctrination*, London, R. K. P, 1972, p.142.

6) 『고등학교 교육과정(1)』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 별책 4) 7쪽 참조.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마.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⁷⁾

고등학교의 앞 단계인 중학교의 경우도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지향점이 같은 것은 물론이다. 종교교과는 정해진 선택의 폭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부에서 명시한 「종교」교과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종교에 대한 폭 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기른다.
- 가.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하여 종교적 인격을 가르쳐, 자기성찰과 체험을 토대로 하여 종교적 가르침과 의식 및 공동체를 이룬다.
- 나.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세계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 인간이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활터전이면서 아직 신비한 존재로 남아 있는 우주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 라. 외래종교사상을 수용한 과정과 한국의 무속신앙을 이해하고, 건전한 종교생활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마. 종교공동체의 이념과 기준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그 공동체가 분담하고 있는 역할을 인식하여 긍정적 측면을 배운다.
- 바. 특정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서, 각자의 신앙심을 키우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화창달에 기여한다.⁸⁾

고 밝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목표와 교과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라는 문화보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보다는 종교관의 정립에 중점이 두어진다면⁹⁾, 종립학교가 아닌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천적

7) 같은 자료 3쪽 이하.

8) 같은 자료 852-853쪽.

9) 제7차 교과과정의 '종교'과목의 성격을 「'종교'는 종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과목이다.」(같은 자료 852쪽)라 하여 신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종교인에 대해 신앙을 배제한 문화보고로서의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는 결여된 듯 보인다.

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어떻든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종교교과는 내용구성에 있어서 제6차보다 구체적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1) 인간과 종교, (2) 세계문화와 종교, (3) 한국문화와 종교, (4) 종교경험의 이해, (5) 현대사회와 종교, (6) 특정종교의 교리와 역사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⁰⁾ 이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표 1>과 같이 조정되고 있다.

<표 1> 제7차 교육과정 「종교」교과의 내용체계

영역	내용	용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의 문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종교의 의의와 역할
종교경험의 이해	◇여러가지 인생문제 ◇경전과 종교규범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종교의식과 종교적 실천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사상과 배경 ◇종교의 특성이해	◇참된 것과 깨달음
세계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크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와 기타종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종교적 인간관 ◇과학과 종교
한국종교와 문화	◇한국불교와 문화 ◇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한국유교와 도교 문화 ◇한국 무속신앙과 민족종교
종교공동체	◇공동체이념과 구조 ◇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적 인격형성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한국종교와 문화창조	◇종교적 생활 ◇나의 종교생활 설계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제

10)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분석은 정진홍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2001. 교육부, 149쪽 도표 참조.

6차에서 종교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을 최초로 구성한데 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해설자는 이를, (1) 교육과정의 구성과 체계화, (2) 종교교과의 성격명시, (3) 학생중심의 목표진술 및 구체적인 하위목표 제시, (4) 내용영역의 구체화 및 보편적 종교교육 내용 강화, (5) 종교교육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적용, (6) 다양한 방법의 평가로 정리하고 있다.¹¹⁾ 적어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다종교적인 사회현실을 중심으로 내용구성을 살펴볼 때, 제7차에 있어서 「종교공동체」 부분을 항목으로 살리고 있는 부분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종교」교과 교육지침의 (마)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다종교 사회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균형 있는 종교이해, 종교간의 공존과 협력을 통한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대부분의 중등학교가 무시험 추첨입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종교를 위주로 한 종교교육은 자칫 종교간의 배타성을 조장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건전한 종교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종교 교과서를 검토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전라북도의 경우 종교 교과서에 대한 인정도서 심의에 필수기준 10항목과 교과 기준 20항목을 들고 있는데, 전자가 국가관 등의 일반사항이라면 후자는 편찬체계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표 2>¹³⁾와 같다.

11) 정진홍의 전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149쪽 참조.

12)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과 영역별 내용에 있어서 이 분야를 (1)여러 종교의 공동체는 어떤 이념과 기준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가?, (2)사회성원들을 결속시키고 통합하는 종교의 기능은 어떠한 것들인가?, (3)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4)종교생활을 통한 인격형성은 자아실현과 어떠한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도 「다종교적 상황을 인식하여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기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한다.」고 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

13) 「교과 용도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841호, 2000. 6. 19)에 의한 심의규정.

<표 2>종교교과서 교과기준 심의표

항목	심 의 관 점
내용 선정 과 조직	1.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종교교과의 목표 및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2.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궁극적인 실재의 문제를 통하여 종교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이 되었는가?
	4. 내용이 정확한 근거 위에 서술되었으며, 거짓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5. 사실 및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6. 지나치게 고답적이거나 난잡한 내용은 지양하고 있는가?
	7. 특정한 내용에 치우쳐 균형을 잃거나 특정한 것을 선전, 비난하는 내용은 없는가?
내용 의 진술	8. 내용은 보편화된 최신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가?
	9. 내용은 학문적 체계, 교수-학습체계에 맞게 조직되어 있는가?
	10. 학생의 지적 발달단계와 학교급별 교과수준에 맞게 진술되어 있는가?
	11. 학생의 학습경험과 관련지어 있으며,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있는가?
	12. 활자의 크기, 지형 등은 적절하며, 외래어의 표기 맞춤법, 띄어쓰기 등은 정확한가?
	13. 내용의 표현과 용어는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있는가?
	14. 내용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되어 있는가?
편찬 체계	15. 내용은 학교급별, 단원간에 계열성이 유지되어 있는가?
	16. 인간적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7. 전체적인 조망능력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중시하고 있는가?
	18. 종교 철학의 측면에서 본 우리 가치관의 현실과 당면과제를 바르게 제시하고,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인 배려는 적절한가?
	19. 종교의 주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학습안내가 되어 있는가?
	20.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는 종교교육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재량권이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학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체적인 결단이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가 종립 학교요, 따라서 운영주체가 종교단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원불교 종립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원불교의 교육이념은 교리사상의 전개차원이지만, 개교(開敎, 1916) 초기부터 그 실천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개조(開祖)인 소태산(少太山-朴重彬, 1891- 1943)은 오랜 구도수행(求道修行) 끝에 대각(大覺)이라는 궁극적인 종교체험을 얻고, 「최초법어(最初法語)」를 통해 제도이념(濟度理念)의 첫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후일 수신(修身)의 요법, 제가(齊家)의 요법, 강자·약자 진화(進化)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수신의 요법 1조)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술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제가의 요법 2조)
지도 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1조)¹⁴⁾

등,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민중을 구제할 포부를 밝힌 것으로, 교육에 입각한 지도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화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종사(소태산) (대각 개교-大覺 開敎) 당시의 시국을 살펴 보시사 그 지도강령을 표어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開闢)되니 정신을 개벽하자’하시니라.¹⁵⁾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

14) 『正典』 수행편 최초법어(『圓佛敎全書』 84쪽 이하).

15) 『大宗經』 서품 2장(『圓佛敎全書』, 원불교출판사, 1977, 96쪽).

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佛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에 노력하라. ...¹⁶⁾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開敎) 동기니라.¹⁷⁾

고 말한다. 개교의 동기에서부터 너른 세상의 무수한 생령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지도·연구·훈련 등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리조직에 있어서도 평등사회 건설 요항으로 사요(四要) 즉, 자력양성(自力養成)·지자본위(智者本位)·타자녀교육(他子女敎育)·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 수행의 길로 제시한 삼학(三學) 즉 정신수양(精神修養)·사리연구(事理研究)·작업취사(作業取捨)¹⁸⁾를 말하고 있어서 교육관의 일단을 확인하게 된다.

원불교 교육은 이러한 준비기를 거쳐, 1924년 전북 익산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중앙총부를 건설하여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진다.¹⁹⁾ 당시 일본 식민통치하에서 제도권 교육이 비록 실시되고는 있었지만 원불교 초기교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형식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소태산은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적인 신앙수행을 통하여 제도권교육을 극복하는 차원으로 지도한 것이다. 즉, 신앙수행을 합동수련기간인 정기훈련(定期訓練)과 일상생활 중의 상시훈련(常時訓練)으로 나누고 있는 바 전자가 정규교육(Formal Education)이라면, 후자는 비정규교육(Informal Education)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정기훈련이라는 정규교육과정에서는¹¹과목[염불·좌선·경전·강연·회화·의두(疑頭)·성리(性理)·정기일기·상시일기·주의(注意)·조행(操行)]이라는 교과목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의 진행여부는 자신이 일기법으로 점검하며, 총괄평가의 성격을 띤 신분검사법(身分檢査法)으로 최종 평가한다. 이 평가에 따라 공부성적과

16) 『대종경』 서품 15장(『원불교전서』 102쪽)

17) 『정전』 총서편, 개교의 동기(『원불교전서』 21쪽)

18) 『정전』 교의편 사요·삼학(『원불교전서』 39쪽)

19) 김혜광, 「교육사」, 성업봉찬회편,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578쪽 이하에서는 원불교 교육사를 교육활동준비기(1916- 1923), 일제하의 교육(1924- 1945), 유일학림 이후 교육활동(1946 이후)로 시대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사업성적이 매겨져 학위등급이 정해지며 법위(法位)의 진급(進級)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의 교리에는 법위등급(法位等級)으로 제도화되어 법위를 측정하는 준거로 정착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²⁰⁾

이후 경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인재양성 등의 교육과정을 조직화 시켜 나가고 있는데, 1928년에는 「농업부 기성연합단」을 설치하면서,

대범 정신적 연구란 모든 사업진행의 근본이요, 모든 사업진행은 또한 육신생활의 근본이요, 육신생활법은 정신적 연구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신이 서로 근본이 되고 연구와 사업이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니 정신적 연구가 아니면 육신생활의 근본이 서지 못할 것이요, 육신생활이 아니면 반드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우리 출가선 무산대중(出家禪 無產大衆)이여, 비록 정신적 연구가 가장 긴요한 줄로 아나 능히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지 못함은 다만 육신생활의 관계가 된 것이라, 만일 연구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면 무슨 사업을 성취치 못하리요. 부처님 말씀에 대개 사람의 공부는 복족혜족이이(福足慧足而已)라 했으니 이 방면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 기관을 설립하여 낮으로는 농업을 근무하고 밤으로는 진리를 연구하여 몇 개월은 농업을 근무하고 몇 개월은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실로 이 양방을 구족케 하여 모든 사업의 의무를 공급한다. 본 취지에 찬성하는 제씨는 연구하기를 놓지 말며 근무하기를 놓지 아니하여 밖으로는 본교의 사업을 세우고 안으로는 도덕의 정신을 밝혀 우리 무산대중의 근거가 되어 원만한 사업을 성취할 것이다.²¹⁾

라 밝히고 있다. 농업부를 만들어 작무를 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같은 해에 「인재양성소(人材養成所) 기성연합단(既成聯合團)」을 설치²²⁾하여 인재육성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관이 몇 단계를 거쳐 오늘날 교정원 교육부로 이어지고 있다.

만년에 이른 소태산은 교단이 사회적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교단삼대 사업목표를 교화(教化)·교육(教育)·자선(慈善, 사회복지)으로 정하고,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1940년 유일학원(唯一學院)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나 일제

20) 『정전』 수행편,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일기법, 법위등급(『원불교전서』 55쪽 이하)

21) 『월말통신』 3, 1928(정화사편, 『圓佛敎敎故叢刊』 1, 1969, 19쪽)

22) 『圓佛敎敎史』 2편 2장(『원불교전서』 1074쪽)

에 의해 기각되고 만다. 그의 입멸후 종법사(宗法師)를 계승한 정산(鼎山-宋奎, 1900- 1962)에 의해 1946년 유일학림(唯一學林-원광대학교 전신)으로 설립된다. 정산은 교육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 할 것이니라. 사람이 비록 만물 가운데 가장 영특하다 하나 교육의 힘이 아니면 능히 그 최령의 자격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비록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또한 교육의 힘이 아니면 능히 유지발전을 보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에 기초가 되는 태종의 기간으로부터 나고 자라는 여러 기간을 통하여 반드시 태교와 유교와 통교의 모든 도가 잘 베풀어져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또한 교육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문이 있나니, 하나는 과학교육이요 하나는 도학교육이라, 과학교육은 물질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나니,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으로써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써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²³⁾

위에서 그가 밝힌 교육은 교단교육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본질에 입각하여 그것이 세계진화와 인류문명의 나아갈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통해 보면 원불교의 교육은 안으로 교역자교육²⁴⁾과 밖으로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에 해당되는 일반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중등학교 교육기관은 1951년에 설립된 원광중학교(익산)가 시작이다. 이 학교의 건학정신을 정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3) 『世典』 제2장 교육(『원불교전서』 720쪽)

24) 원불교 교역자교육 기관은 학부과정의 원광대학교(익산) 원불교학과, 영산원불교대학교(영광)의 원불교학과, 석사과정의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익산)가 있다. 전원 기숙사 생활로 이 과정을 마치고 교역자고시에 의해 得度시켜 교역자(敎務)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교정원의 교육부이며, 산하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1981), 『교단 100년을 향한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연구』(2001)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다다섬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양성을 건학의 기본정신으로 한다.²⁵⁾

이는 원불교 개교동기에 입각한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원불교에서 설립운영하는 원창학원·해룡학원·성지학원·원경학원·화랑학원 등 5개 학교법인 산하에 11개교도 그 설립 동기와 교육이념도 이와 같다. 현재 원불교 종립학교의 현황 일단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불교의 중등교육 기관>

◇중학교◇

1. 성지송학중학교

주소: 513-842 전남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19
전화: 061-353-6351 교장: 황명신 교무: 곽진영 외
특징: 대안학교

2. 원광여자중학교

주소: 570-968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523
전화: 063-856-1141 교장: 정정용 교무: 서원중
교당전화: 063-852-3043 특징: 일반계

3. 원광중학교

주소: 570-972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22-5
전화: 063-832-6616 교장: 주정경 교무: 김혜은
교당전화: 063-834-7611 특징: 일반계

4. 해룡중학교

주소: 513-80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68
전화: 061-351-0901 교장: 권세영 교무: 임상원외
특징: 일반계

25)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교육부 2001년도 현황자료.

◇고등학교◇

1. 경주화랑고등학교

주소: 780-894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
 전화: 054-771-2355 교장: 서종호 교무: 이형은 외
 특징: 대안학교

2. 영산성지고등학교

주소: 513-902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77
 전화: 061-352-6351 교장: 황명신 특징: 대안학교

3. 원경고등학교

주소: 678-831 경상남도 함안군 적중면 황정리 292
 전화: 055-931-1404 교장: 노원경 교무: 서용덕 외
 특징: 대안학교

4. 원광고등학교

주소: 570-972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9-4
 전화: 063-832-7090 교장: 윤현두 교무: 박근영
 교당전화: 063-832-6610 특징: 일반계

5. 원광여자고등학교

주소: 570-968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520
 전화: 063-853-1080 교장: 김 진 교무: 송정심
 교당전화: 063-856-4840 특징: 일반계

6. 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

주소: 570-968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523
 전화: 063-857-1251 교장: 안 영 교무: 정명선
 교당전화: 063-857-1070 특징: 실업계

7. 해룡고등학교

주소: 513-80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68
 전화: 061-353-9292 교장: 권세영 교무: 임상원 외
 특징: 일반계

이들 단위 학교에는 모두 교역자(교무)가 파견되어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단계에 맞추어 「종교」교과 전담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들 학교중에서 일반계·실업계 학교에서는 교당운영과 「종교」교과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안학교는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대안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마음공부」 시간 등 열린교육 프로그램²⁶⁾을 운영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원창학원 산하의 각 학교(원광고등학교·원광여자고등학교·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원광중학교·원광여자중학교)에서는 제6차 교과과정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을 선택하여 그의 일부를 종교교과 내용으로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2년도부터는 종교교과와 타과목을 복수로 선택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²⁷⁾ 참고로 각급학교에 있어서 원불교 입교자(신자)는 학생수 대비 19%에서 74%에 이르고 있으며²⁸⁾, 법회(주1회) 출석은 입교자 가운데 60%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추어 중·고등학교 교재인 『종교(원불교)』가 편집되어 심의될 혹은 심의 중에 있다.²⁹⁾ 심의필인 교재는 교단산하 각급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고등학교 『종교(원불교)』의 구성

항 목	내 용	
종교와 나	◇종교적 삶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의 요소와 기능	◇종교의 분류
세계종교의 이해	◇유교	◇불교
	◇도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한국종교의 이해	◇한국의 민간신앙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26) 영산성지고등학교를 비롯한 각 학교에서 넓은 의미의 종교교육으로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성공사례가 보고되며(『월간 원광』 등), 삼동청소년회 등을 통해 이웃종교와 일반학교에도 보급되고 있다.

27) 교양교과에 있어서 「종교」와 「진로와 직업」을 복수로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28) 원불교중앙총부 교육부 현황자료(2001년 9월 현재)에 의하면, 전체학생수 대비 원불교 입교자는 원광고등학교가 1,024명 중 440명(43%), 원광여자고등학교가 811명 중 162명(20%), 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가 631명 중 117명(19%), 원광중학교가 1,005명 중 741명(74%), 원광여자중학교가 1,114명 중 663명(60%)으로 집계되고 있다.

29) 이들 중·고등학교 『종교(원불교)』는 원창학원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심의를 요청하여, 필자도 심의위원장 심의에 참여하였다. 고등학교용은 2000년에 인정되었고, 중학교용은 현재 심의중이다.

항 목	내 용
종교간의 대화	◇다종교사회의 종교생활 ◇종교간 대화와 종교협력
소태산대종사	◇소태산 대종사가 오신 뜻 ◇소태산 대종사의 일생
원불교의 가르침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성자의 삶 ◇나의 참 주인, 진리 ◇원불교의 신앙 ◇원불교의 수행 ◇일상 수행의 요법 ◇계문 ◇한 울안 한 이치
개벽종교의 원불교	◇미래는 밝다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말라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라 ◇나의 조물주는 나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종교와 정치는 수레의 두바퀴 같다 ◇강자는 약자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 ◇예수의 심통제자는 나의 심통제자 ◇한 중생도 버릴 수 없다
원불교 문화의 이해	◇원불교의 이해 ◇오늘의 원불교

이 교과서 내용을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구성과 비교하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견된다. 교과서 집필이 전체상황을 숙지하고 마련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었고, 특정종교인 원불교의 내용이 목차의 절반을 차지하며, 서술에서도 그러하다.³⁰⁾ 내용상에 있어서 「종교간의 대화」와 같은 항목이 설정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제시된 「종교공동체」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30) 중학교용 교재의 심의가 계속중인 것도 이에 대한 보충작업을 위한 조치이다.

IV. 결론 :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이상에서 원불교 종립 중등학교의 상황을 중심으로 종교교육 문제를 살펴 왔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제6차 교육과정을 보충하여 마련한 제7차 교육과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두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정규교육과정의 틀 속에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 교양교육의 시행에 따른 문제이다. 교양교육으로 운영되는 종교교육은 복수 교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 교사에서부터 수업을 진행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하여 동아일보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58.3%와 고교 교사의 74.3%가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시기를 늦추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유보하는 한편 그 폐지요구도 16.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³¹⁾ 제7차교육과정이 명목적으로는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 시행이 불가능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적어도 종교교과의 경우 선택교과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서와 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종교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 세계시민을 향한 종교공동체 등에 대한 교육은 결국 교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종교교사가 특정종교의 틀내에서 양성됨으로써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가 박약한 채, 기존의 교과서로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면 특정종교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더구나 당해 종립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주체가 개방된 종교교육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가가 현실적인 과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종교에 바탕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는 있다.

그러면 원불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해 온 과제는 원불교의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원불교 종교교육의 현황에 비취볼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전망은 가능하리라 본다.

31) 「수업개혁 사실상 미비... 제7차 교육과정 좌초위기」(『동아일보』 2001. 6. 17).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종교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교정원 교육부와 학교현장간에 긴밀한 협조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정규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담당교사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도록 대학의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수학 등을 통한 교사양성체제를 갖추어 교사가 양성 공급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원불교 교리상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교리적 준거체제를 형성해주는 주요한 예는 앞에 인거한 정산의 법문과 같이 적어도 세계시민의 교양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원불교가 종교간 협력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결국 이런 교리적 근거³²⁾위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 경영자는 물론 종교적 여건이 다른 담당교사들이 종교교육 관련 제반 정보를 공유할 때 종교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교학 및 교육학계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전개한다면 현장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I)』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교육부, 1998.
 『大宗經』, 『원불교전서』,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77.
 『世典』, 『원불교전서』,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77.
 『圓佛敎敎故叢刊』, 익산 : 정화사, 1969.
 『圓佛敎敎史』, 『원불교전서』,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77.
 『正典』, 『원불교전서』,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77.

김귀성, 「원불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일 종교교육 심포지엄 발표논문』, 부산: 동서대, 2000.2.

32) 『정전』 수행편, 범위등급(『원불교전서』 91쪽)에서는 원불교의 높은 종교적 인격의 척도로 「출가위는 . . .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라 하여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_____, 「한국의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김혜광, 「교육사」, 성업봉찬회편,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89.

신광철,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종교과목 교과과정의 현황과 전망」, 『한일 종교교육 심포지엄 발표논문』, 부산 : 동서대, 2000.2.

양은용, 「원불교 범위등급의 성립과 특징」, 『원불교사상』 25, 익산 : 원불교사상연구원, 2001.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 서울 : 한국종교학회, 1986.

A. Flew, *Indoctrination and Religion*, I. A. Snook, *Concept of Indoctrination*, London, R. K. P, 1972.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and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ystem

Yang, Eun-Yong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ligious subject in highschool is one of the selective curriculums. Religious subject is desirable, nevertheless, it is not agreed.

Because the unit school is operated by the specific religious organization and the selection of its curriculum system is not wide.

The educational idea of won-Buddhism is well reflected on its motivation of foundation by the founder, So Tae San. The secondary educational bodies are 11 by 5 corporate bodies.

These religious educational bodies of Won-Buddhism are prepared for practising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ystem. The matter is not in form but in contents.

The educational idea of Won Buddhism is beyond its religious boundary and must suggest culture and morality in that education is the way of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cultural society of the mankind.

Key words: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ystem,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subject, Won-Buddhism, educational bodies of Won Buddhism.